

인 사 말

종단의 대소사를 가리지 않고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원로의원 대종사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두달여 동안 종단 현안으로 인해 깊은 심려를 드리게 되어, 부덕한 마음이나마 원로 스님들께 송구의 마음을 올립니다. 더불어 급작한 종단 현안에 대해 원만하게 헤쳐가라는 고견의 뜻을 전해 주신 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개혁과 쇄신이라는 시급한 현안에 마주하여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마음으로 종단의 문제점을 성찰하여 왔습니다. 이에 지난 6월 7일 제1차 쇄신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한 중법안이 제190회 중앙종회에서 진지한 논의 끝에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종헌개정을 비롯한 소위 쇄신입법은 종단의 급작스런 현안에 맞추어 급히 마련된 것이 아니라, 지난 2년여 동안 중앙종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도들의 대의를 반영하고 총무원과 협의해 가면서 현재와 현실에 맞도록 준비해 오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시급한 현안을 마주하면서 이상적인 개혁안과 현실을 감안해야하는 고충속에서 국민과 종도의 요구에 따라 제1차 쇄신계획에 박차를 가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로의장스님을 비롯한 원로 대종사께서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를 제안하고 참여하신 것은 현안의 혼란을 이겨내는 밝은 지혜의 눈이자 종도에게 수범이 되는 선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쇄신위원회의 중심적 역할과 선 교 율, 그리고 종단행정을 아우르는 결사 자문위원회의 고견은 종단 현안을 풀어가는데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선적 과제의 쇄신계획을 마련하고, 교구본사 등 관련 사안이 중요 당사자인 기관과 관련하거나 종단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공의를 보다 더 모아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완성

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지난주에는 총무원, 중앙총회, 호계원, 그리고 교구본사와 비구니회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가 한자리에 모여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종단의 지도자라는 각자의 위치에서 종단 발전과 쇄신에 대한 의견개진과 마주한 난제들의 해소를 위한 공감대의 형성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쇄신계획의 실천과 향후의 단계적인 쇄신계획 마련을 위하여 이와 같은 자리를 지속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종도를 비롯한 불교계의 여러 단체들은 이러한 쇄신계획 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한편으로는 더욱 확실해야 한다는 추가적 쇄신 요구가 공존하고 있지만, 단시간에 이루기 어렵고 공의를 모으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원로스님들의 고견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원로회의에 준비한 중무보고를 통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과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로스님의 고견은 지속적으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면 주요 소임자들이 찾아뵙고 뜻을 소중히 하여 종단 중흥을 위한 실질적 실천에 반영하고 현실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종단 현안으로 심려를 드리게 된 것에 재차 송구의 말씀을 드리며, 불교와 종단을 위하는 염려로 새기어 쇄신계획 마련과 그것의 실천에 흔들림 없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